

## 일본어 동시통역에서의 비유창성 요소 분석: 휴지와 머뭇거림을 중심으로

이 선 화  
(중앙대)

### 1. 서론

‘21세기 국제화 시대’라는 말이 새롭게 들리는 시대는 지났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유대와 협력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긴급 난제로 국제적 교류와 소통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온라인 소통에 물꼬가 트이면서 웹 세미나 등을 통한 국제회의 개최 수는 더욱 빈번해졌다. 이에 국제회의에 불가결 요소인 동시통역의 수요 증가와 함께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전문통역사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회의 통역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동시통역의 완성도 및 품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통역사의 입장에서는 마치 TV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아나운서와 같이 매끈하면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발화를 구사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극히 제한된 시

간 속에서 수많은 정보처리를 하면서 높은 품질의 동시통역을 수행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어절과 어절 사이에 과도한 휴지(pause)나 머뭇거림에서 오는 불필요한 간투사(filler) 등이 들어가면서 유창한 통역을 방해받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를 통역에 있어서의 비유창성(disfluency) 요소라고 부른다(Mead 2005: 48). 이 비유창성 요소는 제2 언어습득 분야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요소로 간주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어를 구어답게 자연스러움을 부여하는 요소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어 통역사가 동시통역을 할 때 나타나는 비유창성 요소 중 휴지와 머뭇거림(hesitation)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들 요소가 실제 동시통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동시통역의 (비)유창성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통역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미드(Mead 2005)는 영어를 이탈리아어로 통역할 때의 유창성의 지표로 발화 속도(speech rate)와 휴지 길이(duration of pauses), 발화율(Phonation/time ratio, PTR), 조음 속도(articulation rate), 평균 연속 발화 길이(Mean length of run, MLR) 등을 설정하여 유창성의 지표로 삼아 통역의 유창성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레너트(Rennert 2010)는 통역의 품질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유창성을 들며, 이를 시간적 변수의 함수로 볼 수 있는 운율적 언어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유창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는 요소로 휴지(pause), 숨소리(audible breathing), 머뭇거림(hesitations), 자음과 모음의 장음화(vowel and consonant lengthening), 잘못된 문장 시작(false starts), 수정(repairs), 반복(repetitions), 발화 속도(speech rate)로 구분하였다. 마르텔리니(Martellini 2013)는 운율은 억양과 강세, 리듬의 조합으로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전달에 필수요소이므로 운율적 특징을 잘 구사하는 통역사가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사소통 과정에 기여한다고 하며, 운율(prosody)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어와 이탈리아어의 동시통역에서 목표 텍스트(target text)의 발화 속도(speech

rate), 휴지(pauses) 및 음절 늘리기(syllable lengthening), 억양 및 톤 단위(intonation and tone units), 탁립(prominence), 정보 단위(information Unit)를 분석한 바 있다.

국내 연구로 이태형(2012)은 통역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시간적 양상인 휴지에 주목하여 미국 오바마 前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승리 연설문을 동시통역한 것을 중심으로 휴지 분포를 살펴본 후 원문과 동시통역의 휴지를 비교하면서 과도한 휴지가 발생한 문장을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 입력의 주도권을 통역사가 아니라 화자가 가진 상태에서 정해진 속도로 입력되므로 중간에 통역사의 정보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발생하여도 멈추거나 확인을 위해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동시통역의 위험부담을 시간적 양상에 근거해서 휴지를 비롯하여 동시성, 분당 음절 수(SPM, syllables per minute), 발화율(SP, speech proportion), EVS(Ear-to-Voice Span)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이태형 2013).

최문선(2015)은 통역 학습자의 영한 순차통역 및 동시통역 결과물에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역대학원 재학생이 수행한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실험을 통해 비유창성 현상을 측정하였다. 분석 항목이 되는 통역 학습자의 비유창성 특징으로 느린 통역과 간투사가 많은 통역, 반복과 수정이 잦은 통역을 들었다. 실험을 통해 발화 시간과 휴지 길이, 간투사 길이 면에서는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의 유창성 결과가 비슷하였고, 발화 속도, 발화율, 휴지 빈도에서는 동시통역이 순차통역보다 덜 유창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에 사용한 원문이 동일하지 않아 원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연구 결과가 학습자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일반적인 현상인지에 대해 가리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통역 결과물의 유창성 면에서 전문가적인 동시통역 수행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의 트럼프 前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ST(Source Text)로 하여 전문가와 초보자의 영-한 동시통역의 결과물을 대조 고찰하였다(최문선 2018). 유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화 속도, 조음활동 중단, 조음활동 지속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로 전문통역사의 통역이 초보 통역사에 비해 ‘유창’할 것이라는 단순한 주관적 인상에 대해 어떠한 실제적인 차이에 근거하는 것인지를 측정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연구로는 ‘나고야대학 동시통역 데이터베이스(名古屋大学同時通訳データベース)’를 활용하여 영어-일본어 동시통역에서 통역사의 발화 속도(話速)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다(笠浩一朗 외 2009). 거시적 관점에서는 연사의 발화 속도와 통역사의 개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연사의 발화 상태와 통역의 진행 상황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동시통역에서 통역사는 발화 속도 면에서 연사의 발화 속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역사가 스스로 발화 속도를 제어하고 있으며, 발화 내용의 확정 전후, 혹은 연사가 발화 중이나 휴지 중이냐에 따라 발화 속도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동시통역의 (비)유창성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영어를 필두로 한 서구권 언어가 중심이었으며, 독일어→영어, 혹은 영어→한국어 등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 동시통역에 국한된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유창성 요소를 고찰하기 위해 실험에 참여시킨 피험자의 대부분이 전문통역사가 아니라 통역 학습자인 점, 일본어와 한국어 동시통역의 유창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후속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일본어 동시통역에서 일본어-한국어, 한국어-일본어의 양방향 동시통역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피험자로는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실제 통역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 통역사, 네 명을 참여시켜 실험의 신뢰성과 연구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위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동시통역 실험을 통하여 통역에 나타난 비유창성 요소 중 휴지와 머뭇거림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sup>1)</sup> 실험에는 현직 국제회의 통역사, 네 명을

1) 바르틀로미예크지크(Bartłomiejczyk 2006)가 동시통역의 유창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의사소통의 부정확성(communicative inaccuracies)과 전달의 결함(flaws in delivery)으로 나누고 각각을 대표하는 요소를 휴지(pauses)와 머뭇거림(hesitations)으로 정의한 것에 근거를 둔다.

참여시키고,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회의에서 온라인 웨비나(webinar)<sup>2)</sup>로 바뀌어 버린 국제회의의 모습을 반영한 형태로 100% 온라인 상황에서의 동시통역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은 한국인 연사의 발화를 일본어로 통역하는 AB동시통역<sup>3)</sup>과 일본인 연사의 발화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BA 동시통역, 양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미리 준비된 인터넷상의 화면에서 연사가 발화를 하면 통역사가 동시통역을 수행하고, 연구자는 이를 녹화 및 녹음한 후 전사 작업을 거쳐 이를 토대로 비유창성 요소 중 휴지와 간투사를 가려내는 형태로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동시통역의 비유창성을 고찰하기 위한 시간적 요소인 휴지와 머뭇거림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동시통역의 비유창성 요소: 휴지와 머뭇거림

비유창성 요소		상세 설명
휴지	빈도	통역사의 발화에서 음절 및 어절, 문장 사이에 1초 이상의 멈춤 현상이 일어나는 곳의 빈도를 계산한다.
	총 길이	통역사의 전체 발화 시간에서 휴지가 차지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한다.
머뭇거림	간투사	‘어’, ‘음’, ‘그’와 같이 통역사의 언어 습관이나 연사의 발화 내용에는 없는 군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장음화	장음으로 발화하는 음절이 아님에도 특정 부분을 길게 발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설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동시통역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 통역사의 자격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통역 스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실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시킨 통역사는 모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sup>4)</sup>을 졸업한 10년 이상(평균 15년)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 2)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므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3)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의 기준에 따르면 A언어는 통역사의 모국어를 말하며, B언어는 모국어가 아니지만, 의사전달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가리킨다.
- 4) 동 대학원은 1979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전문 통·번역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2005년 아시아지역 최초로 CIUTI(세계통번역대학원협회)에 정회원교 자격을 부여받았다(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http://gsit.hufs.ac.kr>).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모두 여성이며, A언어는 한국어이다. 피험자 선정에 있어서 숙련된 전문가라 하더라도 통역사 개인의 언어적 습관이나 경력 및 실력의 차이, 전공 혹은 전문분야 등의 요소로 인하여 실험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총 네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하우스<sup>5)</sup>에서의 통역 경력과 프리랜서로서의 통역 경력을 골고루 갖춘 통역사로 섭외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통역사의 정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에 참여한 통역사 정보

구분	최종 출신학교	최종학력	졸업 후 통역 경력		
			총 경력	인하우스 경력	프리랜서 경력
통역사1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졸업	17년	3년	14년
통역사2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졸업	17년	15년	2년
통역사3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졸업	16년	5년	11년
통역사4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졸업	10년	3년	7년

실험에 사용한 원천텍스트는 국제회의 통역사가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로 선정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역사는 사전에 회의에 대한 정보와 연사들의 발표 원고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시통역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번 실험에서는 발표 주제와 발표 상황, 발표자 정보만 제공하는 극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하였다. 이는 본 실험의 목적이 통역사의 비유창성을 고찰하기 위함<sup>5)</sup>이므로 사전 정보가 충분한 경우 실험대상이 전문가인 통역사들인 만큼 비유창성 요소가 다발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원천텍스트의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5) 인하우스(In-house) 통역사란,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통역사를 말하며, 상근통역사라고도 한다.

〈표 3〉 원천텍스트(ST)의 정보

구분	번호 <sup>6)</sup>	원천텍스트인 발표문의 제목	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일
한국어 ST	ST-A	한중일 스마트시티 웹세미나	08분 19초	이정훈 서울시 대표	2020.08.19
일본어 ST	ST-B	日中韓スマートシティーウェブセミナー	08분 04초	요나쓰 마사후미 도쿄도 대표	2020.08.19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실험 참가자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전문 국제회의 통역사, 네 명을 섭외한다.
- 2) 실험에서 실제 통역 상황과 동일한 통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Zoom을 통해 실험 참가자를 초청한다.
- 3) Zoom 회의에서 연구자는 통역사에게 사전에 준비한 두 연사의 영상을 송출하기 전에 각각의 연설 및 발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sup>7)</sup>를 제공하고, 이를 숙지할 시간을 준다.
- 4) 통역사가 동시통역할 준비가 되면 연구자는 사전에 준비한 두 연사의 영상을 송출하고, 통역사는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을 수행한다.
- 5) 실험 참가자가 동시통역하는 것을 연구자는 같은 온라인 현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녹음 도구<sup>8)</sup>를 사용하여 녹음하고 저장한다.
- 6) 실험 후, 연구자는 녹음 내용 및 연사의 발표 내용을 모두 전사한다.
- 7) 녹음 파일을 오디오 파일 편집 도구(Audacity)<sup>9)</sup>를 사용하여 연사의 음성 파일과 통역사의 음성파일을 비교하며 분석한다. 파일 편집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의 mp4 형식의 녹음 파일을 카카오인코더

- 
- 6) 원천텍스트를 Source Text(ST)라고 하므로, 편의상 한국어와 일본어 원천텍스트를 각각 ST-A, ST-B라고 지칭한다.
  - 7) 통역의 비유창성 요소를 고찰하기 위한 실험이므로 통역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였으며, 제공한 정보는 회의명과 회의 주제, 회의가 진행된 날짜, 회의 배경, 연사의 전체 발화 길이, 발표 내용에서의 중요 키워드 2~3개이다.
  - 8) 녹음 도구로는 휴대전화기의 음성녹음 기능과 Zoom에서의 기록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 9) 오디오 파일 편집프로그램인 Audacity를 사용하였다.

(CacaoIncoder)를 사용하여 mp3 형식으로 변환한다.

- 8) 파일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휴지의 빈도와 휴지 길이를 산출한다. 주파수 표시를 통해 휴지의 빈도는 1초 이상의 조음이 없는 구간의 개수로 산출하였고, 총 휴지 길이는 이들 구간의 시간(초)을 모두 합하였다.
- 9) 전사한 원고와 녹음 파일에서 통역사의 비유창성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 4. 실험 결과

### 4.1 휴지 빈도와 휴지 길이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을 수행할 때 빠르고 중단 없이 통역하는 것이 유창한 통역이라고 할 때 유창하지 못한 통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로 ‘휴지’를 꼽을 수 있다. 휴지란, 조음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학자에 따라 무음 휴지, 발성 휴지와 무음 휴지와 발성 휴지가 연속되는 복합휴지, 또는 위치에 따라 기능적 휴지와 머뭇거림 휴지로 나누기도 한다. 또 레너트(Rennert 2010)와 같이 통사적 휴지와 비통사적 휴지로 나누는 관점도 있다. 휴지라고 해서 모두 통역에서 유창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문법적 경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휴지에 해당하는 무음 휴지는 청자가 청취하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분할하도록 돕고, 화자는 청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음 발화 내용을 계획할 수 있다(Mead 2005). 또, 휴지가 담화 내용의 전환점을 표시하거나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고, 청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Cecot 2001).

#### 4.1.1 휴지와 언어의 방향성

휴지란 조음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연설에서의 휴지는 구어에서 리듬성(rhythmic aspect)을 생성하는 필수요소이며, 이 리듬성은 인간이 듣기 기술 및 말의 의미론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통역사는 동시통역을 시작하기 전에 화자의 다음 정보 입력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휴지



를 가지기 때문에 통역사의 발화는 때때로 평소의 발화와 다른 인상을 주기도 한다(Tohyama and Matsubara 2006: 893).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동시통역에서 리듬성이 끊김으로써 유창성을 방해하는 1초<sup>10)</sup> 이상의 휴지를 측정하여 언어방향 별로 휴지의 빈도와 총 길이를 산출하였다. 다만,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모든 휴지가 동시통역의 유창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발현되는 휴지는 아래의 휴지빈도 및 총 휴지 길이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을 통해 계산한 각 통역사의 휴지 발생 빈도와 휴지 길이 및 통역사 평균값은 아래 <표 4>와 같다. 연사의 발화에서 발생한 휴지의 경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사의 휴지 정보에 관하여도 함께 표기하였다.

<표 4> 비유창성 요소: 휴지 빈도와 휴지 길이

분석대상	휴지 빈도(회)			총 휴지 길이(초) <sup>11)</sup>		
	AB동시 통역	BA동시 통역	전체 합계	AB동시 통역	BA동시 통역	전체 합계
연사	ST-A	ST-B		ST-A	ST-B	
연사의 발화	7	2	9	11.0	2.3	13.3
통역사1	16	12	28	33.2	19.2	52.4
통역사2	31	47	78	51.4	90.2	141.6
통역사3	36	27	63	58.8	54.2	113.0
통역사4	21	34	55	44.7	54.1	98.8
통역사 평균	26	30	56	49.8	54.4	104.2

휴지를 통한 언어방향 별 비유창성을 살펴보면 휴지빈도에서 AB동시통역

10) 미드(Mead 2005: 43)는 휴지의 단위를 최소 0.25초의 단위로 표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휴지라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1초 이상(Shreve, Lacruz and Angelone 2011)라는 점, 너무 짧은 휴지는 호흡과 정상적인 발화 분절을 위한 것(Wang and Li 2015)이라는 점, 1초 이상의 과도한 길이의 휴지는 청중에게 통역사의 정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느끼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한 점(이태형 2012: 198), 인지적으로 휴지임을 감지할 수 있는 길이가 1.1초(최문선 2015: 5)라는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휴지로 판단하는 길이의 기준을 1초 이상으로 하였다.

1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이 26회, BA동시통역이 30회로 BA동시통역의 비유창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총 휴지 길이도 AB동시통역이 49.8초, BA동시통역이 54.4초로 휴지 빈도와 총 휴지 길이 면에서 모두 BA동시통역의 비유창성이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즉, 통역사에게 모국인 한국어로 통역할 때 발화 중간에 더 많이 쉬는 시간이 발생했으며, 한 번 쉬 때의 시간도 더 길었다. 또한, 네 통역사 모두 휴지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통역 언어의 방향과 총 휴지 길이가 긴 언어의 방향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휴지 빈도와 총 휴지 길이는 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역사 별로 보면 통역사1과 통역사3이 전체 경향과는 반대로 일본어로 통역할 때, 즉 BA동시통역의 휴지 빈도와 총 휴지 길이의 값이 모두 더 컸다. 그러나 통역사1과 통역사3의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의 휴지 빈도의 차이는 각각 4회와 7회, 총 휴지 길이의 차이는 각각 14초와 4.6초로 크지 않은 데에 비해 BA동시통역에서 비유창성이 높게 나타난 통역사2와 통역사4는 휴지빈도에서 각각 16회, 15회의 차이가 났으며, 총 휴지 길이에서는 각각 38.8초, 9.4초로 차이를 크게 벌린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통역의 경우, 발화된 말에 대해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교할 때 같은 정보량을 처리하는 데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약 1.2배 정도 많은 음절 수를 필요로 한다(김한식 2007: 72). 따라서 일본어 통역에서는 BA동시통역을 할 때보다 AB동시통역을 할 때 더 많은 음절 수로 발화를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AB통역에서 휴지의 빈도를 더 줄이고, 휴지 길이도 짧게 해야만 한국어 원천 텍스트와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이는 AB동시통역에서 휴지 빈도가 낮고 총 휴지 길이가 짧게 나타난 본 실험의 통역사 평균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1.2 연사와 통역사 휴지의 상관관계

연사의 휴지 빈도를 살펴보면, AB동시통역에서 7회, BA동시통역에서 2회 발생하였다. 이는 통역사 휴지 빈도의 전체 합계인 AB동시통역 26회와 BA동시통역 30회와 비교해볼 때 연사의 휴지 빈도는 통역사들의 휴지 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사의 발화에서 휴지가 발현하더라도 통역사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시간 안배를 함으로써 휴지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 통역사가 휴지를 줄이는 전

략으로써 후술할 간투사와 음절의 장음화로 대표되는 머뭇거림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머뭇거림은 통역사의 발화 자체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유창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특히 연사의 발화를 거의 실시간으로 따라가며 통역하는 동시통역에서는 연사의 휴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휴지를 줄이는 전략으로써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휴지 길이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연사의 총 휴지 길이는 AB동시통역에서 11.0초, BA동시통역에서 2.3초이고, 통역사 전체의 휴지 길이 합계는 AB동시통역이 49.8초, BA동시통역이 54.4초로 휴지 빈도와 마찬가지로 연사와 통역사의 휴지 길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방향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한국인 통역사는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에서 각각 휴지 길이를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통역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사와 통역사의 휴지 비율 면에서 살펴보면, 연사와 통역사의 휴지 빈도는 각각 9회와 56회로 통역사의 휴지가 연사보다 약 6배 더 많이 발생되었으며, 총 휴지 길이는 연사가 13.3초, 통역사가 104.2초로 약 8배의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연사의 휴지가 통역사의 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연사의 휴지 발생 비율과 통역사의 발생 비율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통역사는 휴지를 포함한 형태로 원천텍스트의 전체 길이 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 4.2 머뭇거림의 발현

통역의 유창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머뭇거림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머뭇거림을 다시 ‘간투사’와 ‘장음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클락과 폭스 트리(Clark and Fox Tree 2002)는 화자가 설명을 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할 때나 정확한 표현을 형성하지 못할 때, 이미 말한 발화를 수정하거나 앞으로 할 말을 생각해야 할 때 시간을 끌기 위한 책략의 하나로 간투사를 사용한다<sup>12)</sup>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간투사를 통역사가 발화 사이사이에 한국어의 ‘어, 음, 그, 이제’ 등과 같은 소리나 일본어의 ‘え、こう、その’ 등의 소리를 삽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장음화를 원래는 장음을 갖지 않는 어휘에서 통역사가 특정

12) 하지만, 심현섭(2008: 440)에서 재인용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것으로 정의한 다음, 통역사가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발현되는 횟수와 그 종류를 고찰함으로써 통역의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 4.2.1 간투사의 발현 양상

동시통역이 발생하는 국제회의에서 청중은 통역사의 통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지만, 통역사는 자신의 통역 실력 외에도 연사의 발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시통역의 비유창성을 유발시키는 항목을 고찰할 때 통역사가 발화한 통역 결과물 외에도 연사의 발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연사의 간투사는 ST-A의 경우, ‘어’, ‘어떤’, ‘저희(의)’, ‘그런’, ‘아마’, ‘지금’, ‘이제(인제)’, ‘자’, ‘또’, ‘그’, ‘아’, ‘예’, ‘뭐’, ‘이런’, ‘여기’, ‘좀’, ‘저’ 등으로 약 17종류가 100회, ST-B에서는 ‘あの’, ‘その’, ‘この’, ‘ま(あ)’, ‘え’, ‘これ’, ‘あ’, ‘そういう’, ‘そのように’, ‘で’, ‘あと’의 11종류가 110회 있었다.

ST-A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어’(49회)와 ‘어떤’(16회), 그리고 단독 어휘만 보았을 때에는 실제로 본문의 문장 구성상 필요한 어휘인지, 아니면 머뭇거리면서 오는 간투사인지 구별이 되지 않으나 문장 내에서 문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간투사로 판별됨을 알 수 있다. 이에 간투사로 판별되는 사례들을 예문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간투사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 (1) 이러한 어, 여기서는 리빙 랩이라는 개념으로 기술 실증 및 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관련된 어, 활동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 마곡지구가 저희의 어떤 어, 스마트시티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3)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기 다 공감하실꺼라고 믿습니다.
- (4) 아, 지금 그러면서 인제 제가 느꼈던 것은 스마트시티 자체가 아, 단순한 첨단 기술의 어떤 인프라 목적이 아닌 성장 혁신 플랫폼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발표를, 어, 이 발표를 말, 드리고자 합니다.
- (5) 어, 결론적으로 어, 서울시는 시민 중심으로 어, 참여하고, 주도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하고 있어, 예, 목표를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6)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줄 포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7) 스마트시티 구현이 되는 것이 아마 서울시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문(1)과 같이 한 문장 내에서도 ‘어’를 세 번이나 발화하였으며, 예문(2)도 ‘마곡지구가 스마트시티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로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데도 대표적인 간투사인 ‘어’를 비롯하여 자칫 문장 내 구성 성분으로 필요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저회의’, ‘어떤’과 같은 어휘가 불필요하게 삽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문(3)의 ‘여기’도 얼핏 보면 부사로서 문장 내에서 필요한 어휘로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꺼라고 믿습니다’로 충분하다. 아마 ST-A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꺼라고 믿습니다’를 말하고자 한 것이 위 예문과 같이 표현되었다고 추측된다. 예문(4)와 예문(5)도 한 문장이 다소 길기는 하나 예문(4)의 ‘아’, ‘지금’, ‘인제’, ‘아’, ‘어떤’, ‘어’, 예문(5)의 ‘어’, ‘어’, ‘어’, ‘에’와 같이 문장의 의미 구성상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머뭇거림이 한 문장 안에서도 각각 6회와 4회나 삽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6)의 ‘좀’과 예문(7)의 ‘아마’와 같이 문장 내에서 삭제하여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는 어휘를 ST-A는 발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일본어로 통역하게 되면 예문(6)의 경우 ‘そしてすべての人々が少し包容できるような交通福祉を達成しようとしています。<sup>13)</sup>’가 되나, 이는 문맥상 매끄럽지 못하다. 본 실험에 참여한 통역사들은 경력이 10년이 넘는 숙련된 전문통역사인 만큼 모두 ‘조금’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어휘는 통역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간투사의 횟수에 반영되어 ST-A가 100회 간투사를 발현한 데에 비해 통역사 평균은 52.2회로 ST보다 더 적게 발화한 것으로 증명된다.

마찬가지로 ST-B의 간투사를 살펴보면 11종류, 총 110회 중 ‘あの’가 44회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その’가 32회, ‘ま(あ)’가 15회의 순이었다. 실제 문장 속에서의 사례는 아래 예문과 같다.

- (1) あの, 皆様、あの一、本日はこのような意義深いあのウェビナに参加させていた

13) 연구자가 번역한 문장임.

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2) あの、本日の私の、その、3国の、その、官民の皆様との連携によりまして、あの、よりよいスマートシティ作りといったことを目指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 (3) もう一つ、その、竹芝、ま、ちょっと海沿いを、あの、ま、これも東京の都心部にあります...
- (4) 観光やモビリティ、えー、またヘルスケア・防災...
- (5) で、次に、あの、ページをお願い致します。
- (6) フ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といったことが必要です、あと、デジタル都市の...
- (7) 実現のためには、あ、東京都としての予算的な、あの、手配、あ、準備をなきゃ...

ST-B도 발화 습관으로 인해 예문(1)과 예문(2)와 같이 한 문장 안에서도 ‘あの’와 ‘その’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문(3)과 같이 ‘あの’, ‘その’와 함께 ‘ま’도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예문(4), (5), (6), (7)과 같이 다양한 간투사가 나타난다.

이와 비교 대상으로 본 실험에서 나타난 통역사의 간투사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간투사의 종류로는 통역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AB동시통역에서 1음절의 간투사로 ‘え, あ, で’가 있었고, 2음절로는 ‘この, その, あの, こう, あと, , えと, まあ’, 그밖에는 ‘だから, こうい, そうい, そのような’ 등의 3음절 이상의 간투사도 발견되었다. BA동시통역에서는 1음절로 ‘어, 아, 이, 그, 음, 뭐, 네, 예’, 2음절로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이게’ 등의 간투사가 나타났는데, AB동시통역과 같이 3음절 이상의 간투사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AB동시통역의 ‘え, あ’와 BA동시통역의 ‘에, 아’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공통적인 간투사인 만큼 AB동시통역에서 한국어의 발화 습관으로 ‘에, 아’가 발견되고, BA동시통역에서는 일본어의 언어간섭에 의하여 ‘え, あ’가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로는 AB동시통역을 할 때 일부 통역사의 발화에서 ‘에, 아’를 비롯한 ‘그, 어’와 같은 한국어의 간투사가 발견되었으며, 마찬가지로 BA동시통역에서 ‘え, あ’ 등의 일본어의 간투사가 발견되는 것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4.2.2 장음화의 발현 양상

실험에서는 간투사와 함께 장음화 현상도 많이 발생하였다. 장음화는 발화 속에서 자음이나 모음, 즉 특정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현상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장음화가 나타난 형태와 위치에 주목하였다. 실험에서 나타난 장음화<sup>14)</sup>의 특징으로 AB동시통역의 경우는 [명사+조사]의 조합에서 조사 앞의 명사의 마지막 어절에서 장음화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예문은 아래와 같으며, 장음화가 나타난 [명사+조사]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 (1) また必須用品であるマスクーの(ますくーの)調達においても、(ST-A, 통역사2)
- (2) ポストコロナ時代ーに(じたいーに)おいてスマートシティの未来像も... (ST-A, 통역사4)

그다음으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복합명사를 이룬 단어에서 앞 명사의 마지막 어절을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많았다.

- (3) データ分析を試みるデジタルーツイン(でじたるーついん)技術... (ST-A, 통역사2)
- (4) ビジネスモデルー(もでるー)創出と関連した活動が進められています。 (ST-A, 통역사3)

또 하나의 명사, 혹은 동사를 통역할 때에 특정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었다.

- (5) インテックスを開ー発(かいーはつ)して、測定してきました。 (명사의 장음화, ST-A, 통역사3)
- (6) 経路を確ー認(かくーにん)し、色んなデータに基づいて... (동사의 장음화, ST-A, 통역사4)

이 외에도 조사에서의 장음화, [동사+조사] 및 [접미어+명사]의 조합, 동사의 특정 어절에서 장음화가 많이 발현되었다.

14) 이 논문에서는 장음화 표시를 길게 발음한 어절 바로 뒤에 붙임표(-)를 넣어 표기하였다.

- (7) こ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てより強化された人的(じんてき)インフラ... (접미어 +명사, ST-A, 통역사1)
- (8) この市民の参加を強化(じやうか)してきています。(동사의 특정 어절, ST-A, 통역사3)

BA동시통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장음화 현상도 AB동시통역과 마찬가지로 [명사+조사]에서 조사 바로 앞 명사의 마지막 어절에서 확인되었다.

- (1) 민관 데이터-를 플랫폼에 연계를 시켜서... (ST-B, 통역사1)
- (2) 특히 스마트시티-의 실현을 위해서 (ST-B, 통역사3)

그다음으로 복합명사에서 장음화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 외에도 하나의 명사나 동사 안에서 특정 음절을 길게 발화한 것이 특징이다.

- (3) 스마트 도로로 바뀔 때 따라서 도민들의 생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사, ST-B, 통역사1)
- (4) 다른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며... (동사, ST-B, 통역사4)

이 밖에서 조사나 부사 등의 특정 품사에서의 장음화 및 동사의 연결어미에서의 장음화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 (5) 어떻게- 구축을- 시켜나갈 것인가... (부사, 조사, ST-B, 통역사1)
- (6) 조기 복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보조동사의 어미, ST-B, 통역사3)

이와 같이 장음화 현상은 통역사별로 횟수나 위치는 달라도 발견되는 형태와 위치는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3 간투사와 언어의 방향성

실험에 참여한 통역사의 간투사가 발현한 횟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간투사의 빈도

분석대상	간투사(회)		
	AB동시통역	BA동시통역	동시통역 전체 합계
연사	ST-A	ST-B	
연사의 발화	100	110	210
통역사1	59	58	117
통역사2	23	5	28
통역사3	60	27	87
통역사4	74	52	126
통역사 평균	54	35.5	89.5

각 통역사의 언어방향 별 간투사의 발현 횟수를 살펴보면, 모든 통역사가 AB동시통역에서 많았다. 평균 횟수로는 AB동시통역이 54회, BA동시통역 시 35.5회로 18.5회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간투사의 발현을 통해 본 비유창성은 AB동시통역에서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언어방향 별 간투사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통역사별 간투사의 빈도 차이는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통역사1은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의 간투사의 차이가 1회밖에 나지 않는 것에 비해 통역사3은 33회의 차이가 난다. 통역사2와 통역사4도 각각 18회, 22회로 통역사1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합계로 본 간투사의 발현도 통역사2는 28회인데 비해 통역사4는 126회로 4.5배 차이가 난다. 이는 통역사 개인적인 발화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숙련도 및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인하우스 통역사로서의 경력을 뜻한다. 상기 <표 2>의 통역사 정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통역 업무를 하는 형태는 인하우스 통역과 프리랜서 통역,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정 회사 및 조직에 속하여서 내부의 통역을 모두 맡아서 하는 인하우스 통역의 경우 업무적 환경의 특징상 통역의 빈도가 프리랜서 통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프리랜서 통역사에게 통역이 발생하는 횟수를 대략 한 달 평균 많게는 10회 내외, 적게는 3~4회 정도라고 어렵잡았을 때, 인하우스 통역사는 하루에도 최소 3~4회의 통역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인하우스 통역사가 쌓을 수 있는 통역의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만큼 훈련되는 강도도 높다. 이것이

곧 숙련도와도 직결된다고 보았을 때 인하우스 통역사로서의 경력이 15년 차인 통역사2와 인하우스 경력이 3년인 통역사4의 숙련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역 실험을 한 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통역사2는 “평소 회사에서 통역 후 모니터링을 할 때 머뭇거림에서 오는 간투사의 발현이 거슬리는 것을 느끼고 이를 없애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의식하면서 통역에 임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역사의 인하우스 통역 경력에 의한 숙련도의 차이가 상기와 같은 간투사와 장음화 빈도의 차이로 발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피실험자의 수를 선행연구에 비해 더 많이 설정한 것도 가능한 한 다양한 통역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실험에 참여한 통역사의 장음화가 발현한 횟수를 언어방향 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언어방향 별 장음화의 횟수

분석대상	장음화(회)		
	AB동시통역	BA동시통역	동시통역 전체 합계
연사	ST-A	ST-B	
연사의 발화	12	12	24
통역사1	33	30	63
통역사2	16	19	35
통역사3	37	45	82
통역사4	32	51	83
통역사 평균	29.5	36.25	65.75

장음화도 간투사와 마찬가지로 통역사별 장음화의 횟수와 경향은 서로 다르지만, 이를 언어방향 별 평균을 계산하면 BA동시통역이 36.25회로 AB동시통역의 29.5회보다 약 7회 장음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통역사 별로는 통역사1을 제외한 모든 통역사가 BA동시통역에서 장음화가 더 많았다. 이에 실험을 통한 통계에서 나타난 장음화 현상으로 유창성을 판단할 때에는 AB동시통역이 더 유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특정 통역사의 언어방향 별 차이가 큰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언어방향 별 합계의

변별력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장음화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으로는 장음화 현상이 많다고 해서 꼭 유창성이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연설에서의 장음화 발현은 경우에 따라 유창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말하는 학자(Ceňková 1989)<sup>15)</sup>도 있다. 이는 통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휴지의 발생으로 인해 발화의 끊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역사가 전략적으로 장음화를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 4.3 휴지와 간투사의 상관관계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휴지와 간투사의 관계이다. 이는 속도와 연속성이라는 요소로도 설명할 수 있다. 장경희 외(2014: 18)에서 유창성의 공통되는 핵심 요소가 속도와 연속성이라고 한 것은 곧 휴지로 인한 끊김이 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머뭇거림에서 오는 간투사나 장음화 현상이 없이 연속적으로 통역이 이루어질 때 유창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마르텔리니(Martellini 2003: 72-73)는 아래 <그림 1>을 제시하며 “휴지를 거의 생성하지 않는 통역사는 더 많은 장음화를 발생시켰다. 통역사 3과 6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분당 평균 단어 수와 총 단어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짧고 긴 일시 중지를 생성했기 때문에 추세를 따르지 않는다. 이처럼 더 적은 수의 채워지지 않은 휴지와 함께 음절을 길게 하는 횟수가 많은 것은 전문통역사가 일정한 말 속도를 유지하고 말 흐름의 짧은 중단을 피하려고 사용하는 운율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고 언어 및 초분절(超分節) 수준을 결합하는 데 통역사의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 실험에서도 오랜 인하우스 경력으로 인해 가장 숙달된 통역사2에서 나타난 휴지와 장음화의 경향이 마르텔리니의 숙달된 통역사3과 통역사6<sup>16)</sup>의 경향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래프로 확인하면 아래 <그림 1>(Martellini 2003)과 <그림 2>(본 연구의 실험)와 같다.

15) 마르텔리니(Martellini 2013: 66)에서 재인용

16) 마르텔리니(Martellini 2003)에서 실험에 참여한 통역사3과 통역사6은 동시통역 경력이 각각 16년과 17년이며, 나머지 통역사는 10년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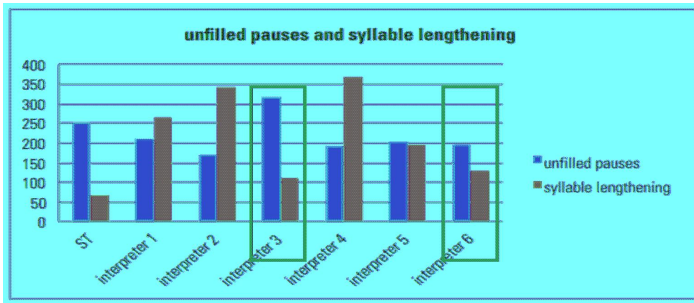


그림 1 마르텔리니(Martellini 2003: 72)의 휴지와 장음화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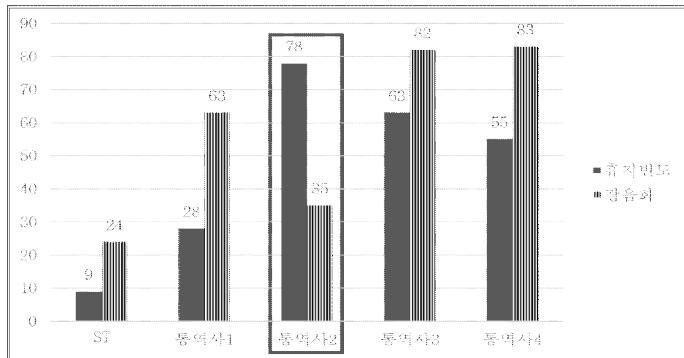


그림 2 본 실험의 휴지와 장음화의 관계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휴지의 빈도가 높고, 장음화 현상이 많이 발현되는 것이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나오는 정보를 선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동시통역에서는 통역사가 일정한 휴지 관리와 장음화를 통하여 작업 기억의 효율화를 꾀하고 정보처리를 하는 시간적 전략으로 적절하게 사용으로써 오히려 통역 결과물에 대한 유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곧 동시통역에서 속도와 연속성을 유연성 있게 관리하며 동시통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통역사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결론

이상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의 비유창성 요소를 휴지 빈도와 휴지 길이, 간투사, 장음화 현상을 측정하고 분석해보았다. 실험 결과, 휴지 빈도와 총 휴지 길이 면에서 BA동시통역의 비유창성이 더 높게 나왔으며, 머뭇거림의 두 요소 중 간투사는 AB동시통역, 장음화 현상에서는 BA동시통역이 비유창성이 더 낮게 나왔다. 또 연사의 휴지가 통역사의 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사의 휴지 발현 비율과 통역사의 발현 비율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통역사는 휴지를 포함한 형태로 원천 텍스트의 전체 길이 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었다.

통역사들의 통역에서 확인된 간투사로는, AB동시통역에서 1음절의 간투사로 ‘え, あ, で’가 있었고, 2음절로는 ‘この, その, あの, こう, あと, , えと, まあ’, 그밖에는 ‘だから, こうい, そうい, そのよう’ 등의 3음절 이상의 간투사도 발현되었다. BA동시통역에서는 1음절로 ‘어, 아, 이, 그, 음, 뭐, 네, 예’, 2음절로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이게’ 등의 간투사가 나타났는데, AB동시통역과 같이 3음절 이상의 간투사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장음화의 양상으로는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 모두 명사와 조사의 조합에서 명사의 마지막 어절의 장음화를 비롯하여 복합명사에서 앞 명사의 마지막 어절, 명사나 조사, 동사에서 특정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장음화 현상은 통역사별로 횟수나 위치는 달라도 발현되는 형태와 위치는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이 거의 비슷하였다.

이 밖에도 통역사가 일정한 휴지 관리와 장음화를 통하여 작업 기억의 효율화를 꾀하고 정보 처리를 하는 시간적 전략으로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통역 결과물에 대한 유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통역을 할 때 통역사가 거의 실시간으로 연사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전환하며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지나 간투사, 장음화 등의 비유창성 요소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원문 텍스트를 발화하는 연사조차도 아나운서처럼 군더더기 요소 없이 깔끔한 발화는 하지 못한다. 브레넌과 스코버(Brennan and Schober 2001: 292)는 ‘Uh, um’과 같은 담화 표지가

있을 때 오히려 목표 단어를 더 잘 인식하므로 담화 표지의 사용과 반복은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였으며, 남길임(2011: 115-116)도 비유창성 현상은 구어를 구어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며 구어에 자연스러움을 부여하는 요소라고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통역사의 실험을 통해 유창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간적 요소인 휴지와 간투사/장음화 등의 언어적 요소를 포함한 머뭇거림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 두 요소만으로는 동시통역의 비유창성을 증명하고 이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의 형태로 더 많은 요소와 함께 보다 폭넓은 원천텍스트의 말뭉치를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이 책정되고 나아가 자동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동시통역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한식 (2007) 「신문기사의 문장길이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독이성 제고를 위한 번역전략의 관점에서-」, 『통번역학연구』 10(2): 69-83.
- 남길임 (2011) 「담화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연구」, 『담화와 인지』 18(3): 115-138.
- 박정윤 (2004) 「한일 일한 동시통역에서의 시차의 고찰」, 『日本語文學』 22: 77-96.
- 원종화 (2010) 「영-한 동시통역 전략의 방향성 연구」, 『통역과 번역』 12(1): 131-156.
- 이태형 (2012) 「영한 동시통역의 문장 내 과도한 휴지 연구」, 『통역과 번역』 12(1): 197-214.
- 이태형 (2013) 「영한 동시통역 연구의 시간적 변수」, 『통역과 번역』 15(1): 125-144.
- 장경희, 전은진, 김수현 (2014) 「유아의 보조 용언 습득 경향에 관한 연구」, 『국제어문』 64: 283-314.

- 최문선 (2015)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학습자의 비유창성 양상 분석」, 『통역과 번역』 17(1): 177-207.
- 최문선 (2018) 「통역사 전문성에 따른 동시통역 비교-(비)유창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5): 173-203.
- 하지완, 심현섭 (2008) 「유창성장애 집단과 정상 집단의 간투사 비교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8(3): 438-453.
- 笠浩一朗, 于海貝, 松原茂樹 (2009) 「同時通訳者の話速に影響を及ぼす要因の定量的分析」 『人工知能学会誌』 9: 21-32.
- Bartłomiejczyk, Magdalena (2010) Effects of short interpreting practice on interpreter trainees' performance. In D. Gile, G. Hansen and N. K. Pokorn(Eds.), *Why Translation Studies Matter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83-194.
- Brennan, Susan E. and Michael F.Schober (2001) How Listeners Compensate for Disfluencies in Spontaneous Speec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4: 274-296.
- Cecot, Michela (2001) Pause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ontrastive Analysis of Professional Interpreters' Performance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1: 63-85.
- Čeňková, Ivana (1989) L'importance des pauses en interprétation simultanée, in A. Bothiarel / J. Galden / F. Wisland / J. Zerling (eds) *Mélanges de phonétique générale et expérimentale offerts à Péla Simon*, Strasbourg, *Publications de l'Institut de Phonétique de Strasbourg*, 249-260.
- Clark, H Herbert, and Fox Tree, J. E. (2002) Using uh and um in spontaneous speaking. *Cognition* 84: 73-111.
- Martellini, Sara (2013) Prosod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ase study for the German-Italian language pair.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8: 61-79.
- Mead, Peter (2005) Methodological in the study of interpreters' fluency.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3: 39-63.
- Shreve, Gregory M., Isabel Lacruz and Erik Angelone (2011) Sight Translation and Speech Disfluency: Performance Analysis as a Window to Cognitive

Translation Processes, in Cecilia Alvstad, Adelina Hild and Elisabet Tiselius (eds.),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93-120.

Sylvi, Rennert (2010) The impact of fluency on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interpreting quality.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5: 101-115.

Tohyama, Hitomi and Shigeki Matsubara(2006) Influence of Pause Length on Listeners' Impression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TERSPEECH 2006 - ICSLP*: 893-896.

Wang, Binhua and Tao Li (2015) An Empirical Study of Pauses in Chinese-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3(1): 124-142.

<웹페이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2021년 5월 18일 검색.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hufs.ac.kr/> 2021년 5월 1일 검색.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주최 한중일 스마트시티 웹세미나 (2021.08.19) <https://tcs-asia.org/en/main/> 2021년 9월 2일 검색.

Audacity®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udacityteam.org/> 2021년 5월 19일 검색.

CacaoEncoder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acaotools.com/cacaoencoder/> 2021년 5월 19일 검색.

Zoom Video Communications 공식 홈페이지 <https://zoom.us/> 2021년 5월 18일 검색.



[Abstract]

**Analysis of Factors of disfluency in  
Japanes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cused on Pause and Filler**

Lee, Seon-hwa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occurrences of disfluenc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 particular, pauses and hesitation causing fillers and sound lengthening. The subject group consists of four experienced professional interpreters holding a master's degree in translation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order to identify and analyze pauses and hesitation, they were asked to simultaneously interpret the speakers' talk at actual international web seminars.

It was found that the frequency and length of pauses were both found more in B-A simultaneous interpretation(Japanese to Korean) than in A-B interpretation(Korean to Japanese), though the difference varies from person and person. As for their hesitation, interestingly enough, the analysis exhibits that fillers were found more in A-B translation, whereas lengthening was more manifested in B-A interpreta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speakers' pause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interpreters' pauses: it may be assumed that the interpreters were making an effort to balance the overall length of the source text by intentionally including pauses.

As for the common fillers due to the interpreters' hesitations, 'え', 'あ', 'この', 'その' and 'だから' appeared in A-B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nd '어', '아', '이제' and '이런' appeared in B-A interpretation. The number and location of lengthening differed depending on the interpreter, but the occurrence

and location of lengthening were almost the same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B and B-A.

▶ Key Word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Japanese interpreter, disfluency, pause, hesitation

▶ 주제어: 동시통역, 일본어 통역사, 비유창성, 휴지, 머뭇거림

이선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 후 연구생

snada@hanmail.net

관심분야: 동시통역, 순차통역, 번역, 기계번역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2일